

SK에너지화학, 기업가치 올라간다!

한국투자증권, 순환출자 해소에 독립성 제고 ... 목표주가 10만8000원

한국투자증권은 4월12일 SK의 지주회사 전환이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목표주가를 9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은주 애널리스트는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단순분할이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된 기업가치의 합이 분할 이전보다 높을 수는 없으나, SK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속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소 왜곡돼 있어 지주회사 전환이 경제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단순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과 독립성 향상, 지주회사의 높은 배당성향으로 주주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기대된다는 점, 자회사가 개별사업체로서 디스카운트 없이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따라서 분할 이후 지주회사인 SK홀딩스의 적정주가는 12만9700원, SK에너지화학의 적정주가는 9만9400원 수준이어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12>